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가 주는 주변환경의 변화

오상택*

본 연구는 연구자가 종사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행동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이 불균형해지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를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생활의 안정화가 가져다 주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삶을 이용시설 종사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개입이 발달장애인 개별화였다.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고, 이에 가족 뿐만 아니라 종사자,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중 인지적·기능적 능력에 맞는 개별화 계획을 성립하고 그에 따른 관찰일지를 2021년 8월 16일부터 11월 5일 까지 8주간의 시간동안 발달장애인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또한 8주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 영향평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개별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지역사회이용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해 나타나는 주변환경의 변화를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변화, 발달장애인의 자립화, 욕구해소로 인한 활동범위 확대, 적응력강화,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빈도가 미치는 장애인식의 변화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로 주변환경 즉 발달장애인의 가족, 이용시설, 지역사회시설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가족의 돌봄부담완화, 이용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개입의 최소화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식개선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개별화, 안정화, 긍정적인 변화, 장애인식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평안밀알센터 사회재활교사(침례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장애인복지현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자립, 사람중심지원, 이용자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기반은 선택, 선호, 자기결정이다(김고은, 2021). 개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결정의 기회는 발달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게 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Morris, 2004). 자기결정 원칙은 삶에 관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욕구와 권리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양옥경 외, 2011).

환경 속의 인간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심리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 혹은 상호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조학래, 2017).

또한 장애인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자리잡고 있다(김고은, 이해영, 2015)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을 잘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는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반응적인 환경을 잘 조성하고 그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와 정보, 대안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신은경, 이용, 2019; Lee et al., 2012).

하지만 발달장애영역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당사자의 선택이나 결정보다는 서비스 제공자나 기관의 영향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의사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결정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하지만, 현재 장애인복지현장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이러한 쟁점이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이복실 외, 2018).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는데, 초기에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요인이 강조되었으나(Cristina et al., 2017), 점차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중시되고 있다(Wehmeyer and Abery, 2013). 특히 환경적 요인 중 실무자의 인식과 지원방식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변수이자 영향력이 크다고 입증되었다.(Wong and Wong, 2008).

이번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개별화는 발달장애인

이 자유롭게 자기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통한 자율적인 활동에 해당하며 주변환경은 발달장애인의 가족,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이용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시설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변환경의 변화는 자기결정권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욕구해소와 일상생활에서 자기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자녀돌봄,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개입,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식의 변화를 초점으로 관찰 및 조사연구하였다.

2. 연구 문제

장애인가족, 이용시설, 사회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1) 발달장애인가족 :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한 가정내 자녀 돌봄의 부담 완화 여부

장애인 가족의 경우 이용시설의 21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목적에 맞게 그 중 주 3일 이상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 (1) 센터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
- (2) 최근 1개월 사이에 자녀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되었는가
- (3) 가정에서 이용인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는가
- (4) 이용인이 자기결정이나 스스로 욕구에 따른 활동을 하는 빈도가 늘었는가
- (5) 가정에서 이용인의 도전적 및 감정적 행동이 감소하였는가
- (6) 이용인이 센터 등원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하였는가

2) 이용시설종사자 :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한 사회복지실천개입에 대한 변화

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이용시설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8주동안의 개별화지원을 통해 관찰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 (1) 개별화지원을 통해 나타난 이용인의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 (2) 개별화지원이 이용인의 도전적 및 감정적행동에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 (3) 개별화지원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 (4) 개별화지원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 (5) 추후 개별화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지역사회이용시설종사자 :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여부

개별화지원을 하는 동안 발달장애인이 이용했던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변화되는 장애인식개선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1) 평상시에 발달장애인을 경험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가
- (2) 처음 발달장애인을 접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 (3) 발달장애인을 경험할수록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 (4) 발달장애인을 자주 접하게 된다면 함께하는 것이 편안해 질것인가
- (5)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의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와 이론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장애인 돌봄역할의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에 미치는 요인, 세 번째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 장애인 돌봄 역할의 변화

장애인 돌봄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정에 기여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장애인은 기여하는 구성원 보다는 돌봄의 수혜자로서의 인식이 강하다. 이에 박혜진(2013)과 오세란(2008)은 장애인의 직업은 개인의 경제적 수단 뿐만 아니라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과 삶의 질,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르는 중요한 대안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인장애인의 직업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가족 돌봄의 수혜자로서 강조되어 온 현실 속에서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성인 장애인의 기여 제공에 대한 인식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특히 성인장애인 보다는 가족이 더 약간 긍정적인 인식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당면한 과제는 성인이 된 장애인에게도 여전히 의존적인 돌봄의 대상이나 주변으로 지각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이다(김정은, 조태홍, 2015).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제적인 이득으로서 가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정서적으로 가족의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바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기결정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보다 자신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수용되기 위한 끊임없는 기회가 보장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Carter et al., 2013).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으로 선택한 일상에 대한 일반화¹⁾로 새로운 기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선택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 어떤 반응양식이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똑같이 보상을 받으면 일반화가 발생한다(이인정, 최해경, 2010).

특히 이용시설에서 새로운 기회를 접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지적·기능적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능력을 고려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인지적·기능적 수준에 따라 자기결정권에 의한 직업재활활동, 소근육활동, 여가생활, 지역사회시설이용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주변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에 미치는 요인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가족과 실무자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가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친숙한 사람과 익숙한 환경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상이 바로 가족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라는 연구결과를 보였다(Devi et al., 2020; Wehmeyer, 2005).

실무자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실무자의 지식이나 인식수준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인 당사자와 부모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등은 실무자의 자기결정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지원할 때,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문화 등의 외부적 요인보다는 기관의 지침이나 철학 등과 실무자 자신의 이해와 같은 내부적 요인들이 훨씬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복실 외, 2018).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향상여부에 대한 연구에서는 초기 활동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최유임, 2019).

이번 연구는 이용시설에서 발달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관찰하여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화된 발달장애인의 삶이 실무자 입장에서 사회복지실천개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감정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가족의 장애자녀의 돌봄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3.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은 다른 사람의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지체로서 자유로이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행위이지 능력으로 일

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Wehmeyer, 1998).

강동선(2016)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자기결정 기술을 응용한 방과 후 놀이프로그램이 지적장애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최유임(2019)이 진행한 거주시설의 지적장애인 대상 요리프로그램에서 대상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의 기회가 없었기에 프로그램 초기에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험이 증가하면서 장애인들이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사료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가족이나 실무자의 기회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 저하와 사회성 결여로 인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에 제약이 있고, 타인과의 교류나 친목활동 참여 등의 사회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김고은, 이해영, 2015). 발달장애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 시민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질을 온전히 보장받기는 어렵다(Devi et al., 2020).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용시설에서의 환경조성과 실무자의 사회복지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인지적·기능적 능력에 맞는 개별적 활동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기결정의 범위를 넓힘으로 인해 가정과 이용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이용시설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외에 평상시 발달장애인을 잘 접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식개선 정도를 조사하여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의한 개별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를 확인하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선정기준

본 연구는 연구자가 종사하는 이용시설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21명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와 장애인 가족의 사정으로 시설을 주 2회 이상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6명과 발달장애인 개인의 인지적·기능적 여건에 의한 2명 총 8명의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13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 표집 방법 및 대상자 특성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발달장애인 13명을 대상으로 이용시설에서 종사하는 동안 관찰해온 것을 토대로 의도적으로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인지적·기능적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활동범위를 정하였고, 그 활동범위에서 2021년 8월 16일부터 11월 5일 까지 8주간 발달장애인들의 개별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인지적·기능적 능력이 연약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용시설 내에 배치한 다양한 소근육키트를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전적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산책 및 소근육활동 중 선택하게 한 이후 프리맥 원리²⁾로 인해 컴퓨터활동에 대한 집착을 최소화 하여 그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를 지켜보고자 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감정적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 평소 수영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발달장애인에게 수영활동을 지원한 이후 그에 따른 이용시설에서의 변화를 확인 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기능적 능력이 직업재활활동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활동을 한 이후 자기결정권에 의한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이용시설에서의 장애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참고 <표 1>).

2) 심리학 용어로,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행동을 강화물로 사용하여 일어날 확률이 적은 행동을 하도록 촉진 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21).

〈표 1〉 이용시설 발달장애인(13명) 개별화 활동현황

활동내용	소근육활동	산책or소근육활동 / 컴퓨터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수영장)	직업재활활동 / 지역사회시설이용
참여인원	8명	1명	1명	3명

2. 연구도구 및 절차

연구도구로는 먼저 개별화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활동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관찰은 연구자를 포함한 이용시설 종사자 4명이 같이 2021년 8월 16일부터 11월 5일 까지 8주간 진행하였다.

그 외에 발달장애인의 개별화 활동에 의한 주변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가족, 이용시설 종사자, 지역사회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개별활동에 따른 가족의 돌봄부담완화와 이용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개입의 변화, 지역사회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식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5일 부터 11월 05일 까지 2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타당성과 신뢰도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13명에 대한 개별화활동에 의한 일상생활 변화가 미치는 주변환경(가족, 이용시설, 지역사회시설)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변화 확인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발달장애인 13명의 개별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는 연구자를 포함한 이용시설 종사자 4명이 함께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와 더불어 관찰일지의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를 기준으로 가족 내에서의 돌봄상황, 이용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실천개입의 변화, 지역사회시설에서의 장애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대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13가정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조사기간 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개월 내의 발달장애인의 가정생활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그에 따른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완화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용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를 관찰한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진행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천개입에 대한 긍정적인변화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이용했던 지역사회이용시설의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평소에 발달장애인을 접하는 빈도와 그에 따른 장애인식변화를 조사하였다.

3. 코딩 및 연구 결과 분석 방법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대한 관찰일지와 설문조사로 수집한 가정내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일상 생활 변화와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은 질적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했다. 연구자는 발달장애인 가족, 이용시설 종사자,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와 연구자가 8주동안 진행한 발달장애인 개별화지원에 대한 관찰일지를 토대로 개별화지원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요소를 분류하였고, 분류한 내용을 기준으로 조사대상별로 진행된 설문조사결과를 최종분석 했다. 그 결과 ‘1) 일상생활 안정화, 2) 자립화, 3) 활동범위 확대, 4)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 5) 장애인식의 변화’ 총 5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화

발달장애인 A의 경우 평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활발하게 시설을 이용하였는데, 코로나 19이후 여러 사정으로 이용시설에서는 매우 수동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나타내는 빈도가 많았다.

이에 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 A의 불안감정과 행동을 감소하기 위해 개별화 활동을 지원하여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종사자와 긍정적인 언어를 통한 감정해소를 통하여 연구기간이 종료될 시점에는 다시 밝은 모습을 회복하고 스스로 원하는 소근육활동을 찾아서 진행하고 시간에 맞춰서 정리하는 모습이 일상화 되었다(참고 <표 2>).

발달장애인 B의 경우 수영활동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D의 욕구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외에 약물의 변경에 의한 후유증으로 체중이 불고 수면이 불규칙해 짐으로 인해 시설에서 불안한 감정이 증가하고 큰소리를 치는 빈도가 많아지는 도전적행동의 빈도가 강해지고 있었다.

이에 상황에 따른 약물변경과 함께 종사자와 함께 수영활동을 개별화 활동을 진행하여 발달장애인 B의 도전적행동의 감소를 관찰하였다. 연구가 지속되면서 컨디션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발달장애인 B는 도전적행동이 감소하고 시설에서의 일상생활 또한 안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참고 <표 3>).

발달장애인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설문조사결과 84.6%가 최근 1개월 이내에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되고 자녀돌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가 진행된 8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이다(참고 <표 4>).

그 외 이용시설에서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 개입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하여 종사자의 개입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 활동이 오히려 이용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자립심 향상을 통해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개입의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용인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회재활교사 A)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사의 물리적 도움이 점차 줄어들고 언어적 도움만으로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재활교사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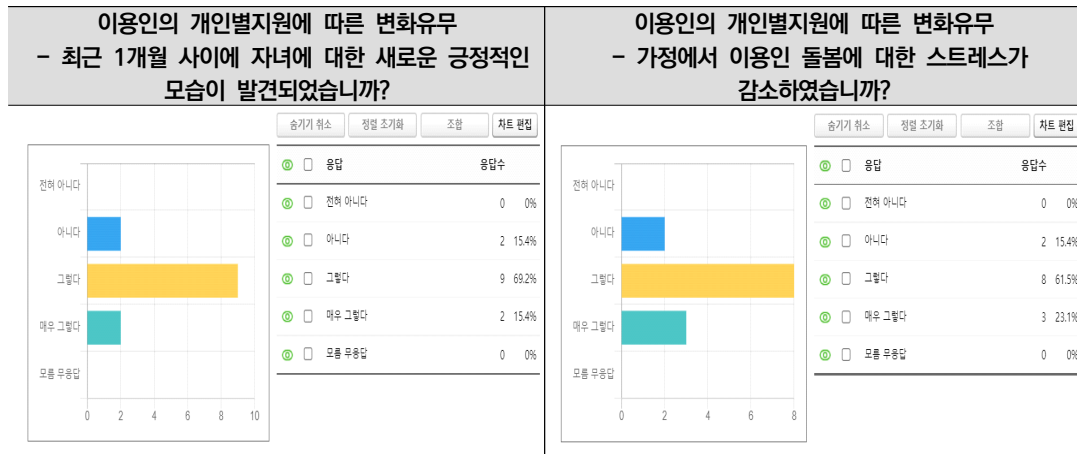
〈표 2〉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A

활동주제	이용인의 의사표현과 그에 따른 활동지원으로 인한 불안감정 및 행동 감소		
추진배경	- 이용인은 코로나19이전에는 밝은 모습으로 교사와 다른 이용인들과 대화를 하는 등 즐거운 모습을 자주 보였으나, 코로나19이후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많아 졌음. 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시 프로그램 활동을 하도록 언어적 도움을 줄 때에 우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음.		
추진목표	-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과 욕구에 대한 대화를 함으로써 센터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회복하고자 함. 개별활동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진행과정	- 등원이후 오늘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대화한다. 자기결정권에 의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스스로 준비한 이후 해당 활동을 하도록 한다. 해당 활동이후 정리를 스스로 한다.		
참여내용			
2021년 9월 13일(월) ~ 9월 17일(금)		2021년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	
9월 13일(월)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그러나 교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말하기 전 까지는 원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음.	10월 25일(월)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활동을 하였음. 퍼즐을 하면서 교사에게 말을 걸며 긍정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임. 이에 교사도 같이 긍정적인 언어로 힘을 실어주자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임.
9월 14일(수)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퍼즐을 한 이후 프로그램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교사가 정리하라고 말하자 정리를 하였음.		
9월 17일(금)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그러나 교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말하기 전 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10월 29일(금)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퍼즐을 스스로 가져와서 퍼즐을 잘 하였으며, 퍼즐 활동을 마친 이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임.

〈표 3〉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B

활동주제	수영활동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도전적행동 감소		
추진배경	- 이용인은 정신질환약 복용으로 인한 비만이 발생한 상태이며, 밤늦게 수면을 취하지 않고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등 일상생활의 밤낮패턴이 바뀌어 밤에는 수면을 취하지 않고 새벽에 잠이 드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음. 낮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 센터에서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도전적 행동(소리치는 행동)을 보이고 있음. 이용인은 코로나19 발생전에 수영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며, 약 2년의 시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수영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음. 또한 부모에게 수영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자주 하였음.		
추진목표	- 이용인의 정신질환약 복용의 횟수를 줄임.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인 수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욕구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균형을 바로잡고자 함. 욕구해소를 통한 센터활동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가정에서 이용인에 대한 부모의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자 함.		
진행과정	- 주 3회 수영활동을 지원한다. = 진행요일 : 화.수.목요일 - 30분이상 수영활동을 하고 이후에 이용인의 변화를 관찰한다.		
참여내용			
2021년 8월 16일(월) ~ 8월 20일(금)		2021년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	
8월 24일(화)	오전에 센터에서 소리를 치는 등 도전적행동을 보임. 오후 수영활동 시 빠른 행동으로 수영을 준비하였으며, 풀장에서 수영을 할 때에 매우 행복한 표정으로 물속에서 물놀이를 하였음.	10월 28일(목)	이용인은 수영활동을 즐겼으며, 수영활동이 끝나는 시간까지 물놀이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음. 수영활동과 센터 내 일상생활 교육을 통해서 센터 내에서 소리를 내거나 흥분하는 빈도가 많이 줄고 있음. 센터 내에서 수면을 취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음.
8월 26일(목)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겼으며, 정리하기 위해 물밖으로 나오라고 했으나 더 있고 싶어하였음.		

〈표 4〉 2021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개별화 지원에 따른 변화 유무)



출처 : 네이버폼

2. 발달장애인의 자립화

발달장애인 C의 경우 시설에서 수시로 종사자의 눈치를 보며 종사자의 언어를 따라하며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종사자를 쳐다보거나 종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매우 수동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이에 개별화 지원을 통해서 수시로 발달장애인 E가 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종사자가 물어보고 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기결정권으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발달장애인 C가 원하는 소근육활동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 E는 연구가 지속될수록 자신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구가 종료될 쯤에는 종사자의 눈치를 보는 행동은 여전히 있었으나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정도로 자립적인 모습을 보였다(참고 <표 5>).

발달장애인 D의 경우 시설에서 매우 수동적인 생활을 보내왔다. 특히 자기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경우 몸을 앞.뒤로 뛰거나 몸을 떠는 등 편안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감정모습을 보였는데, 개별화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D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시설에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불안정한 감정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연구가 지속될수록 종사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빈도가 늘고 자기결정권에 의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이 많아 지게 되었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발달장애인 D에게 자기결정권의 기회를 갖도록 했을 때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발달장애인 D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있었으나 그동안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수동적인 생활패턴을 이룬 것이라 판단하였다(참고 <표 6>).

발달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이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7%가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 스스로 욕구에 따른 활동을 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동기와의 부합하였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의 61.6%가 자녀의 일상생활능력과 지역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결국 가정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과 부합하여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참고 <표 7>).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단순히 개인의 일그 외 이용시설에서의 사회복지실천개입에 있어서도 종사자들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개별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 발달장애인 개별화를 지속할 필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결국 욕구해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자립화와 연결된다고 평가하였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립화로 이어져 자기결정권에 의한 활동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의 욕구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개인의 욕구가 다르고 매번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재활교사 A)

개인별 지원이 잘 이루어져 이용인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회재활교사 B)

이용인들에게 기분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자기결정권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재활교사 C)

〈표 5〉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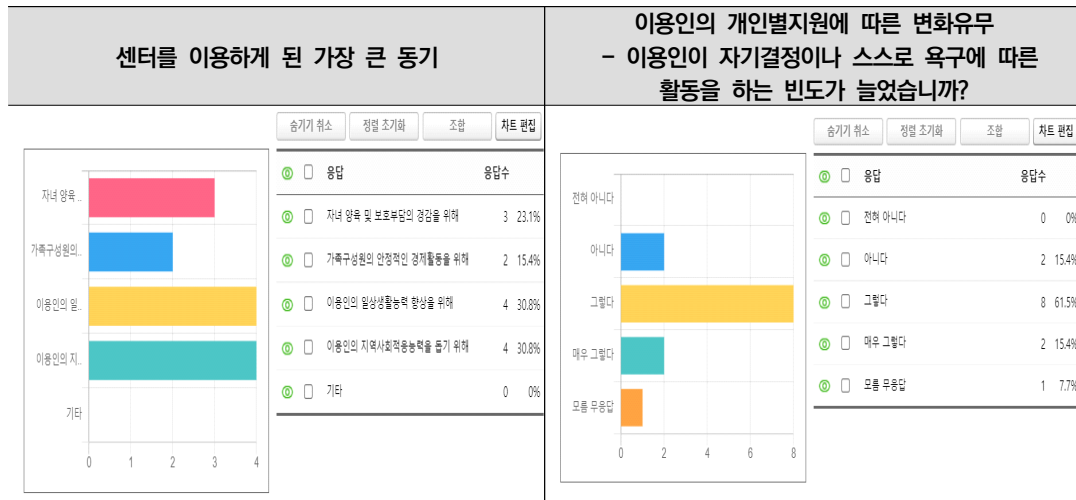
활동주제	이용인의 욕구에 따른 소근육 활동과 대화		
추진배경	- 이용인은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및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음. 그러나 매 순간 교사의 눈치를 보며 교사가 이용인에게 직접 이야기 한 것이 아님에도 교사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다른 이용인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거나 교사가 프로그램이나 일상생활 관련 교육내용을 다른 이용인에게 가르치는 행동을 보임.		
추진목표	- 이용인이 원하는 소근육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혼잡함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고자 함. 다른 이용인과 대화를 함으로써 상호존중의 태도에 익숙해 지도록 한다.		
진행과정	- 등원이후 오늘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대화한다. 자기결정권에 의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스스로 준비한 이후 해당 활동을 하도록 한다. 해당 활동시 활동키드를 옆에 있는 이용인과 공유하거나 함께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참여내용			
2021년 8월 30일(월) ~ 9월 3일(금)		2021년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	
8월 30일(월)	등원이후 교사의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교사가 원하는 활동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자 블록놀이를 가져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블록놀이를 하였음. 블록놀이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교사를 쳐다보며 무슨말을 하는지 주시하였음.	10월 25일(월)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교사를 쳐다봤음. 이에 교사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물어보자 '네'라고 대답하였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스스로 블록장난감을 가져와서 만지작 거리거나 조립을 하였음. 블록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수시로 교사를 쳐다봤음.
8월 31일(화)	등원이후 교사가 무슨말 하는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교사가 이용인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하는 활동을 하라고 말하였으며, 활동시 교사가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이 있거든 묻지 말고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이야기 해주었음.	10월 26일(화)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음. 이에 교사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물어보자 '네'라고 대답하였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스스로 블록장난감을 가져와서 조립을 하거나 만지작 거림. 해당 활동을 하는 동안 교사가 무슨말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쳐다봄.
9월 1일(수)	등원이후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시간표 앞에 있는 다른 이용인에게 앞에서 서성거리면 안된다고 명령조로 말함. 이에 교사가 다른		

	이용인에게 명령조로 말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해줌. 이후 이용인에게 센터에서 쉬는 시간에는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을 교사의 허락이 없어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 해줌.	10월 29일(금)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블록장난감을 가져와서 만지작 거리거나 조립을 하면서 휴식을 보냈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블록장난감을 가져와서 가지고 놀기도 했지만 창문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9월 3일(금)	등원이후 교사가 원하는 활동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자 블록놀이를 하였음. 블록놀이에 집중하다가 수시로 교사를 쳐다봄.		

〈표 6〉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D

활동주제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소근육 활동 및 여가생활		
추진배경	- 이용인은 교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누군가 말해주길 기다리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많음.. 센터 생활시 자기결정권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용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 이용인이 원하는 소근육활동과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함. 이용인의 자유로운 센터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진행과정	- 등원이후 오늘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대화한다. 자기결정권에 의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스스로 준비한 이후 해당 활동을 하도록 한다. 해당 활동이후 정리를 스스로 한다.		
참여내용			
2021년 9월 13일(월) ~ 9월 17일(금)		2021년 10월 18일(월) ~ 10월 22일(금)	
9월 15일(수)	등원이후 하고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퍼즐을 다한 이후 스스로 정리하였으며, 자기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음. 이에 교사가 다른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교사를 가만히 쳐다봤으며, 이에 교사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물어보자 알겠다는 대답을 하였음. 이용인은 말을 하지 못하고 상동음으로 간단히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임.	10월 26일(화)	등원이후 자기자리에 앉아서 소리를 냈음. 이에 교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는 빈도가 적어졌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하였으며, 퍼즐을 다 한 이후 스스로 정리하였음.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음.
		10월 28일(목)	등원이후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가져와서 퍼즐을 하였음.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하자 퍼즐을 하였으며, 퍼즐활동을 한 이후 스스로 정리하였음. 이후 교사가 하고 싶은 활동을 더 해도 괜찮다고 하자 자기자리에 앉아서 교사를 가만히 쳐다봤음. 이에 교사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지 물어보자 상동음으로 그렇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음.

〈표 7〉 2021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센터 이용 동기 / 개별화 지원에 따른 변화 유무)



출처 : 네이버폼

3. 발달장애인 욕구해소로 인한 활동범위 확대

발달장애인 E는 평소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직업재활활동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원활하게 새로운 일상생활에 적응해 갔으며, 시간이 지나면서는 흥미를 갖고 참여하여 시설에서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발달장애인 E는 시설 내에서도 다른 발달장애인들 보다 인지적·기능적 능력이 뛰어났는데 자신이 싫은 것은 가까이도 하기 싫어하는 태도가 강했다. 그런데 이번 연구가 지속될수록 새로운 일상생활인 직업재활활동에 집중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고 연구가 종료될 시점에는 직업재활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며 해당 활동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참고 <표 8>).

그 외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시설천개입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시설천개입에 있어서 문제중심의 개입에서 발달장애인의 강점 중심의 개입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이 더욱 부각 됨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범위가 넓어 졌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주체로서 개인적 강점과 성장, 발달에 집중하여 좀더 일상생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개별화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용인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커질 것이다.

(사회재활교사 B)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인들의 강점과 성장, 발달을 중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재활교사 C)

〈표 8〉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E

활동주제	이용인 기능 및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센터생활 만족도 향상		
추진배경	- 이용인은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명확함. 다른 이용인에 비해 기능이 좋고 직업재활활동시 집중력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센터에서 단조로운 생활패턴을 보이고 있어 이용인의 기능에 맞는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퇴화를 방지하고 자기결정권을 통한 센터 생활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추진목표	- 직업재활활동을 통해 주어진 시간동안 집중도 있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한 일상생활능력 퇴화방지를 지원하고자 함. 자기결정권에 의한 여가생활 지원으로 센터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함. 타의에 의해 수동적인 활동 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활동을 원하는 이용인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함.		
진행과정	- 주 3회 등원이후 오전 1시간동안 직업재활활동을 진행한다. = 진행요일 : 화.수.목요일 - 원활한 직업재활활동을 할 경우 다음주 1시간 자유시간을 제공하고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을 지원함. = 지역사회시설(편의점, 마트, 카페)이용 및 여가생활 등		
참여내용			
2021년 9월 13일(월) ~ 9월 17일(금)		2021년 10월 18일(월) ~ 10월 22일(금)	
9월 14일(화)	주어진 직업재활활동(쇼핑백에 끈을 연결하고 매듭짓기)을 1시간동안 쉬지 않고 잘 하였음.	10월 19일(화)	교사의 인도에 따라 작업을 잘 하였으나, 천천히 하는 모습을 보임. 빨리 작업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여유 있게 직업재활활동을 하였음. 이에 편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며 웃으며 직업재활활동을 하였음.

9월 15일(수)	주어진 직업재활활동(쇼핑백에 끈을 연결하고 매듭짓기)을 1시간동안 쉬지 않고 잘 하였음.	10월 20일(수)	1시간동안 쉬지 않고 집중하며 직업재활활동을 잘 하였음. 점심 식사 이후 쉬는 시간에 마트 이용을 하였음. 마트 이용을 하러 가는 동안 계속 신나하였음. 마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잘 고르고 마트를 구경하는 것을 즐김.
9월 16일(목)	주어진 직업재활활동(쇼핑백에 끈을 연결하고 매듭짓기)을 1시간동안 쉬지 않고 잘 하였음.	10월 21일(목)	1시간동안 쉬지 않고 직업재활활동에 집중을 잘 하였으며, 중간에 힘들어하기도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업재활활동을 하였음.

4. 발달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발달장애인 F는 자신의 욕구해소를 위한 도전적 행동이 강화되어 있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받지 못할 경우 도전적행동을 강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 F를 위한 개별화를 통하여 도전적 행동의 감소를 관찰하고자 하였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 F가 좋아하는 활동인 컴퓨터활동을 보상으로 지원하되 대신 다양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산책, 블록놀이, 퍼즐을 하도록 하여 시설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발달장애인 F는 조건에 따라 도전적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개별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참고 <표 9>).

개별화지원을 통해 도전적행동이 감소된 근거는 시설 외에 가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개별화지원에 따른 변화유무를 묻는 내용에서 69.2%가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및 감정적 행동이 감소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92.3%가 발달장애인이 시설 등원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하였다고 답한 것을 참고할 때에 발달장애인 개별화는 발달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참고 <표 10>).

또한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개입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가 도전적행동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의 욕구해소에 개별화가 영향을 미치기에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지원할 때에 발달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통한 가정에서의 돌봄완화, 시설에서의 사회복지실천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였다.

자신이 결정해서 활동하다 보니 도전적행동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재활교사 A)

스스로 원하는 것을 최소 1가지 정도는 선택할 수 있으며, 욕구 충족이 되었을 때는 도전적 행동감소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재활교사 B)

〈표 9〉 관찰일지 : 발달장애인 M

활동주제	이용인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활동을 통한 도전적행동 및 보호자 스트레스 감소		
추진배경	- 이용인은 불규칙한 정신질환약 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식탐이 늘어 비만이 발생한 상황이며,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활동하면서 늦은시간에 식사를 하는 패턴이 연속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 또한 낮과 밤의 생활패턴이 바뀌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이용인은 원하는 음식이나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소리를 치는 도전적행동을 보임. 이용인은 컴퓨터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만화 캐릭터(미키마우스,보로로 등)를 좋아하여 해당 활동을 통해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생활리듬을 변화시키고자 함.		
추진목표	- 이용인이 원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욕구활동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에 산책, 퍼즐 및 블록놀이 이후에 보상으로 컴퓨터 활동을 지원하여 도전적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함. 센터 등원 후 산책을 진행하여 건강관리를 하고자 함.		
진행과정	- 등원이후 오전에 날씨확인 후 산책을 진행한다. = 진행요일 : 월.화.금요일 ※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인해 월.화.금요일 만 등원하고 있음. - 산책 이후 잠을 자지 않을 경우 퍼즐이나 블록놀이를 진행한다. 위 활동을 모두 했을 경우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내용			
2021년 8월 16일(월) ~ 8월 20일(금)		2021년 10월 18일(월) ~ 10월 22일(금)	
8월 17일(화)	등원이후 피곤해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잤음. 오전 11시에 점심식사를 한 이후 퍼즐을 하도록 지원하였음. 퍼즐이후 컴퓨터활동을 지원하여 스스로 컴퓨터를 켜고 원하는 캐릭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시간을 보냈음.	10월 18일(월)	등원이후 침대에 누웠으나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교사의 인도에 따라 산책을 하였음. 처음에는 산책을 하기 싫어하였으나 산책을 하면서 불안감이 없어지고 편안해 하는 모습을 보임. 산책이후 퍼즐을 하였으며, 그 후 이용인이 좋아하는 활동인 컴퓨터를 하였음.

			시간이 지날수록 컨디션이 좋아졌으며, 오후 프로그램에도 20분 참여하였음. 하원하기 1시간 전부터는 매우 밝은 표정으로 센터 생활을 하였음.
8월 20일(금)	등원이후 피곤해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잤음.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퍼즐을 했으며, 이후 컴퓨터를 하였음.	10월 19일(화)	등원이후 퍼즐을 하였으며, 퍼즐을 한 이후 컴퓨터를 하였음. 너무 오랜시간 컴퓨터를 하여 오후 2시에 산책을 가기 위해 이용인에게 컴퓨터를 그만 하자가 하자 소리를 치며 거부함. 20분동안 소리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임. 이후 편안한 모습으로 하원 하기 전 까지 공룡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센터를 돌아다님.

〈표 10〉 2021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개별화 지원에 따른 변화 유무)

이용인의 개인별지원에 따른 변화유무 - 가정에서 이용인의 도전적 및 감정적 행동이 감소하였습니까?	이용인의 개인별지원에 따른 변화유무 - 이용인이 센터 등원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하였습니까?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용 차트 편집 응답 응답수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2 15.4% 그렇다 9 69.2% 매우 그렇다 0 0% 모름/무응답 2 15.4%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용 차트 편집 응답 응답수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1 7.7% 그렇다 10 76.9% 매우 그렇다 2 15.4% 모름/무응답 0 0%

출처 : 네이버폼

5.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빈도가 미치는 장애인식의 변화

발달장애인 개별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이용했던 지역사회이용시설 3곳(수영장, 카페, 편의점)의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해당 이용시설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가 종사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의 발달장애인을 만났으며, 그에 따른 장애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은 발달장애인을 처음 접했을 때의 생각과 발달장애인을 경험할수록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을 자주 접하는 것이 종사자 자신의 장애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통하여 현재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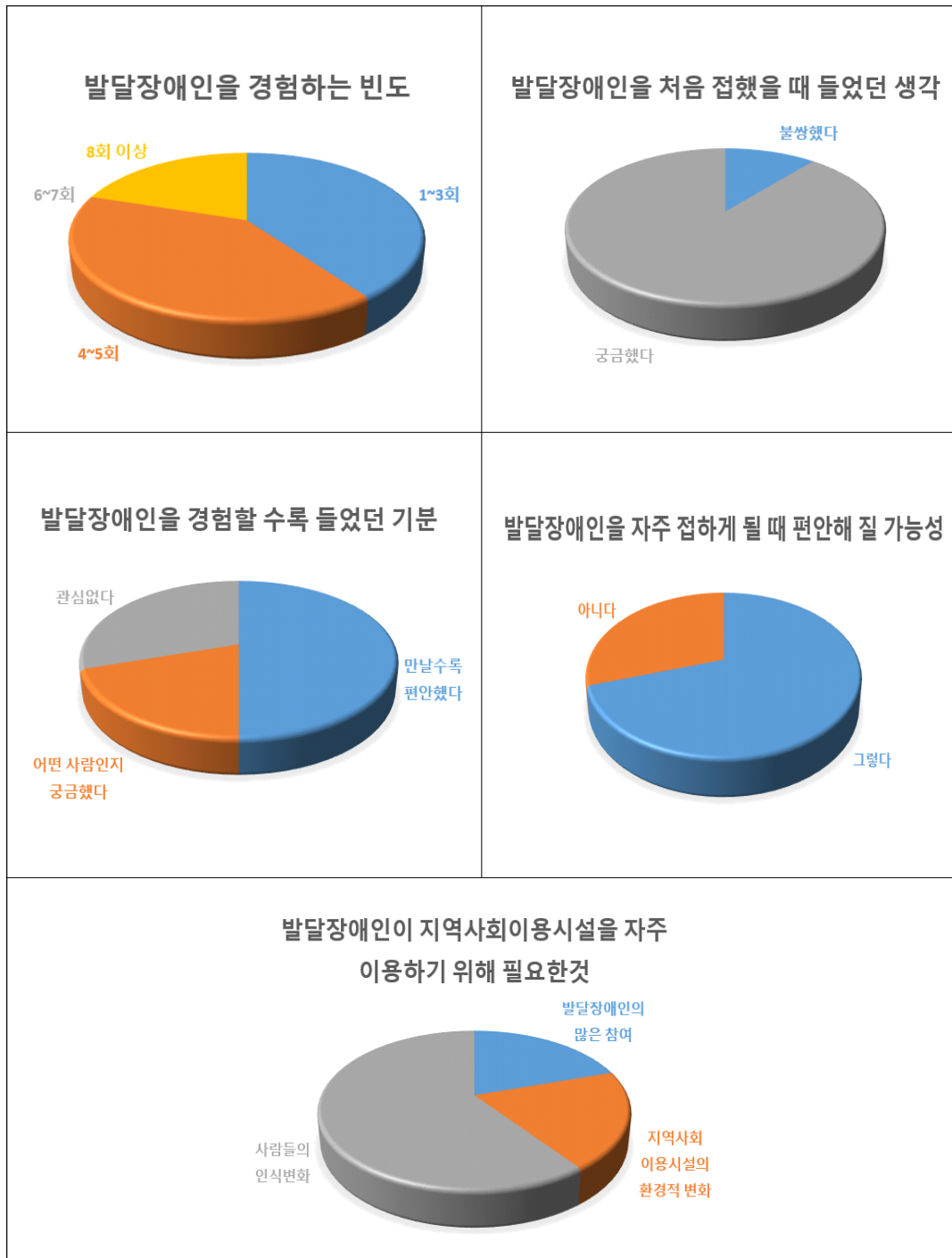
그 결과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들의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을 만날수록 편안했다고 답했으나, 3명은 경험을 했어도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6명은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만큼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반면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종사자 중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경제활동에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랫동안 발달장애인을 경험했어도 바라보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기에 인식의 변화는 쉽지 않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10명 중 7명의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경험할수록 발달장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나 편안했겠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을 자주 접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참고 <표 11>).

〈표 11〉 발달장애인 경험에 의한 장애인식변화 조사 결과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이용시설에서 진행되는 개별화 지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이용시설 종사자,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삶이 단순히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과 종사자의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는 연구자가 종사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중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으로 인해 주 2일 이상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발달장애인 13명에 대한 개별화 계획을 통해 관찰일지를 작성하였고, 그 외에 발달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녀돌봄완화 및 장애인식의 변화를 설문조사하여 그에 따른 결과와 관찰일지를 통한 개별화에 의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변화를 종합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1. 결과 논의

1)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화

이번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별화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감정과 자율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눈에 띄게 안정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개별화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돌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발달장애인이 도전적·감정적 행동의 빈도가 줄어들음으로써 가정의 생활 또한 안정을 찾게 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컨디션에 따라 일상생활의 안정화에는 매번 다른 양상을 보이기에 발달장애인 옆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언어를 하도록 돕는 가족 및 이용시설 종사자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2) 발달장애인의 자립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결국 발달장애인의 자립화로 연결이 되어져 갔는데, 가족이나 종사자의 언어적·물리적 도움이 아닌 발달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자기결정권을 통해 선택하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주어진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본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립적인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화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생활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용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빈도가 늘어남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은 가정에서도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가족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대한 가족의 생활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판단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화를 위해 발달장애인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가족과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3) 발달장애인 욕구해소로 인한 활동범위 확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중 인지적·기능적 능력이 직업재활활동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된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퇴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화를 진행하게 되었다.

개별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스스로 흥미를 갖을 수 있는 보상활동을 지원함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활력이 있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보상으로 주어지는 자유시간 동안에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직업재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연구가 지속될수록 직업재활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해당 활동에 대한 기능적능력 또한 향상되어 발달장애인이 보상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직업재활활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보상활동에 의한 새로운 활동기회 제공은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와 자기결정권에 의한 여가활동증진으로 이어져 발달장애인의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인지적·기능적 퇴화방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판단된다.

4) 발달장애인의 적응력 강화

연구자의 이용시설에서는 일부 발달장애인이 욕구에 대한 집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요소로 인해 이용시설 내에서도 도전적행동으로 일상생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지원과 그에 상응하는 일상생활 지원으로 도전적행동이 감소하고 이용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활동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소근육활동, 산책 등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패턴화를 이룰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

게 되었다.

비록 발달장애인의 컨디션에 따라 개별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 해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인하여 가족과 종사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5)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이용시설 이용빈도가 미치는 장애인식의 변화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최종적인 단계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가 지역사회에 주는 장애인식의 변화였다.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지역사회이용시설에서의 활동이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할수록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대하는데에 편안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사회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자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장애인식의 변화는 쉽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장애인식의 변화는 결국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를 통해 지역사회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남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식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이기에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파악하였다.

2. 제언

이번 연구는 기존 장애 연구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의 돌봄의 범위에서 조금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욕구해소와 더불어 자기결정권에 의한 일상생활을 스스로 살아감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 종사자, 지역사회에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개별화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의 범위에서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에 대한 개입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고은. (2021).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부모개입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1): 329-344.
- 김고은, 이해영. (2015).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연구-부모의 중요성 인식과 교수실행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8: 99-118.
- 김기덕, 장은숙. (2008).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에 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9: 83-113.
- 김정은, 조태홍. (2015).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181-229.
- 박혜진. (2013). 고등학교 졸업이상 성인장애인의 취업현황 및 취업영향 요인 연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2): 145-167.
- 신은경, 이웅. (2019).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개념, 그 의미와 오해. Crisisonomy, 15(11): 57-87.
- 이복실, 제철웅, 이동석. (2018).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40: 5-32.
- 조학래. (2017). 사회복지실천론, 신경.
- 최유임. (2019). 의미 있는 선택 활동의 참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2): 583-590.
- Carter, E., Lane, K., Cooney, M., Weir, K., Moss, C. k., & W. Machalicek. (2013). Parent' assessments of self-determination importance and performance for student with autism or intellectual disability,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118(1): 16-31.
- Cristina Mumbardo-Adam, Joan Guardia-Olmos, Ana L. Adam-Alcocerm Maria Carbo-Carrete, Anna Balcells, Climent Gine, and Karrie A. Shogren. (2017). Self-Determination, Intellectual Disability, and Context: A Meta-Analytic Study.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55(5), 303-314.
- D. S. Kang. (2016). The effect of after-school self-determination skills program applied to self-determinationabilities and self-efficacy of juvenile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55, No1, pp.1-13.

- Morris, M. (2004). “Independent living and community care: a disempowering framework, *Disability & Society* , 19(5), 427-442.
- Wehmeyer M. L. and Brian H. Abery. (2013). Self-Determination and Choice.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1(5), 399-411.
- Wehmeyer M. L. (1998). Student self-report measure of self-determination for students with cognitive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31, pp.282-293.
- Wong P. K. S. & Wong D. F. K. (2008). Enhancing staff attitudes, knowledge and skills in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residential settings in the Hong Ko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52(3), 203-243.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	------------------------	----------------------

Abstract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aused by individualiz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h Sang Teack*

This study started with the fact that the life of the family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ecame imbalanced and difficulties in daily life due to the accidental behavior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the facility for the disabled where the researcher is enga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positive changes in the lives of famili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rought about by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 thought about ways to help the life of the family that affects the life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intervention was individualized for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e to the individu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ositive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daily life of famili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us a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changes in percep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only in their families but also in the workers and the local community. This researcher established an individualized plan suitable for the cognitive and functional abilities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using the facilities, and observed and recorded the observation log for 8 weeks from August 16 to November 5, 2021. In addition, after 8 weeks,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the family, and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ere evaluated and confirmed for workers.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rough individualization of

* Social rehabilitation teacher, Pyeongan MilaL Cente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summarized into five categories: changes in daily lif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pansion of the scope of activities due to self-reliance and resolution of needs.

Through this study, positive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family, use facilities, and community facilities, were confirmed by individualiz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words : Developmentally disabled, Individualized, Stabilization, Positive change, Disability perception